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이근우**

- I. 머리말
- II. 「神代史の新研究」의 신화 이해
- III. 일본신화의 이해
- IV. 단군신화의 이해
- V. 신화 이해의 문제점
- VI. 맺음말

【국문초록】

白鳥庫吉는 단군신화를 문헌고증의 방법으로 연구한 최초의 일본 학자이다. 그는 일본신화에 대해서, 비교신화학 및 언어학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神代史の新研究」라는 강연록을 남겼다. 일본신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문헌뿐만 아니라 유럽·아메리카 등의 사례까지 동원하여 설명함으로써, 일본신화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신화 속의 신은 자연 및 자연현상의 의인화이며, 신의 세계는 관념적인 세계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일본 신화에 나타나는 신화적 보편성·목적성·중국 사상의 반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편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檀·妙香·桓因이라는 세 어휘에만 주목하고 불경 속에서 관련된 사례를 찾음으로써,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한 이후

* 이 논문은 흥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 국립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표 논저 : 安田義方, 이근우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 ; 今谷 明, 이근우 역, 『무가와 천황』, AK커뮤니케이션, 2022 ;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 「『조선표류일기』의 회화자료와 비인현감 윤영규」 『한일관계사연구』 73, 2021 ; 「석보상절의 간행과 정음청의 역할」 『인문사회과학연구』 22-2, 2021.

인 장수왕 대에 승려들이 단군신화를 조작한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불교에 대한 논문을 단 한 편도 쓰지 않았고,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군신화를 불교와 연관시켰다. 일본신화의 천손강림이나 日向三代의 주무대인 日向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고, 단군신화의 蒜·艾·熊女 등 신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 즉 부분에 집착하고 전체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했다. 동시에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일본신화처럼 각종 사료를 구사하여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단군고를 쓴 시점(29세)과 일본 신화에 대한 강연을 남긴 시점(63세)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단군신화, 白鳥庫吉, 일본신화, 이자나기, 이자나미, 동경, 곡옥

I. 머리말

여러 일본인 학자들이 단군신화에 대한 글을 썼지만, 그 중에서 일본 학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은 白鳥庫吉이다.¹⁾ 특히 그는 일본의 신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신화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다. 今西龍가 최초의 한국사 전공자였던 것과 달리, 白鳥는 동양사 연구자였고 일본사는 물론 서양사에 대한 저술도 남겼다. 그런 점에서 白鳥의 단군신화 연구는 일본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그의 단군신화 연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65-88쪽 ; 박찬홍, 「만선사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2007, 3-30쪽 ;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287-314쪽 ; 신현승, 「타자에 대한 시선과 동아시아 인식- 시라토리와 나이트의 언설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0, 2010, 107-131쪽. 이들 논문은 白鳥庫吉의 생애나 학문적 경향·만선사에 대하여 크게 참고가 된다. 이하의 내용은 이들 논문을 참고하였으나, 일일이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그의 강연 원고인 「神代史の新研究」를 통해서 그가 일본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는 천지창조로부터 천손강림에 이르고 있고, 신화가 만들어진 시대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의 단군신화 이해와 일본 신화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의 신화 이해의 문제점도 짚어볼 것이다.

白鳥는 조선사와 서역사를 최초로 연구하였고,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사를 민족학·언어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나아가 일본과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 전체의 역사, 민속, 신화, 전설, 언어, 종교, 고고학 등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10년에는 「倭女王卑彌呼考」를 발표하면서 邪馬臺國 北九州說을 주장하였다.²⁾ 같은 시기에 京都帝國大學의 内藤湖南이 「卑彌呼考」를 저술하여 畿内說을 주장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白鳥의 연구 영역은 기본적으로 세 분야가 있다. 첫 번째로 서구의 실증사학의 영향 하에서 사료비판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아 각 민족의 고대사를 연구하였다. 조선의 경우는 「檀君考」·「朝鮮古傳説考」, 중국에 대해서는 「中國古傳説の研究」, 「尙書の高等批評—特に堯舜禹に就いて」, 일본에 대해서는 「倭女王卑彌呼考」, 북방 민족에 대해서는 돌궐·몽고 전설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중국 고전설에 대해서는 이른바 堯·舜·禹 말살론을 전개하여, 유교의 전통적인 역사관을 타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비교언어학적 방법으로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돌궐·흉노·동호를 비롯하여 일본어와 조선어의 비교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그는 수사(數詞)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사 간의 命名 원리를 비롯하여 각 언어 간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도 사용하였다.³⁾

2) 북규슈설을 주장한 이유는 중국 왕조에 조공하고 책봉받은 히미코가 천황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천황가의 신성성이 부정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3) 예를 들어 「朝鮮語の數詞について」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수사에 대하여

세 번째로 언어비교(음가)를 통하여, 중국 북부 변경 민족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한 대부터 원 대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흉노, 오손, 대완국, 계빈국, 동호, 몽고, 실위 등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영역을 지역적으로 분류해 보면, 만선사⁴⁾·새외사·서역사·중국사·일본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⁵⁾

그의 연구가 갖는 특징과 관심은 1) 민족의 언어 및 혈통의 기원을 모색하고자 한 점, 2) 한문사료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인지를 해명하고자 한 점, 3) 한문사료와 서양의 문헌을 상호비교하여 고찰하려고 한 점을 들 수 있다. 다양한 그의 연구 분야 중에서 이 글에서는 특히 신화 이해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계림유사』, 중국의 『華夷譯語』·『和漢三才圖會』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현재 ‘하나’라는 우리말 수사가 河屯(hadan)으로 『계림유사』에 나타나므로 이를 ‘하나’에 대한 고어로 보았다. 그리고 ‘하나’라는 수사가 통구스의 한 종류인 Oroikko어에서 hodai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서 hadan 이라는 어원으로부터 1이라는 뜻의 ‘하나’와 ‘홀로’라는 뜻의 ‘홀/혼’이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사는 언어의 계통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이에 주목하여 여러 언어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작업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말 수사와 일본어 수사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계림유사』와 같은 문헌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삼국사기』 등에 나타나는 고구려어의 수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실제로 고구려어에서는 三이 密, 五가 于次, 七이 難隱, 十이 德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일본어의 미, 이쯔, 나나, 토오와 연관성이 크다. 白鳥는 한국어의 수사가 단일한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일본어 수사와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 4) 만선사의 주창자를 白鳥庫吉로 파악하고 있다.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65쪽.
- 5) 『白鳥庫吉全集』의 전체 목차와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II. 「神代史の新研究」의 신화 이해

白鳥의 일본 신화 연구⁶⁾를 대표하는 자료는 「神代史の新研究」이다.⁷⁾ 해당 자료는 1928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동양문고 제9회 동양학강좌에서 행해진 강연의 초고이며, 논문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의 「神代史の新研究」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편 神代史의 開闢神
- 제2편 諾冉二神의 大業
- 제3편 諾冉二神의 諸神生成
- 제4편 高天原과 天孫降臨의 章
- 제6편 幽顯의 世界
- 제7편 神代史의 結構

해당 글은 개별적인 신화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그의 신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 장에서는 그가 신화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신화의 의미

白鳥는 신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 6) 일본 신화에 대한 연구는 일본 근대 역사학의 원류라고 일컬어지는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신화’를 국가의 생성 궤적이자 正史의 기원이라는 정통성을 내세우는 논리로 설정하였다.
 - 7) 白鳥庫吉, 「神代史の新研究」『白鳥庫吉全集』1권, 1969, 193~580쪽. 약 390쪽에 이르는 大作이다.

대개 어떤 가문에서는 시조를 알고자 하며, 나라에서는 건국자를 알고자 하며, 또 건국자의 조상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그런데 기록도 없고 구비전설도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주관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신들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다. 한 나라 역사의 첫머리에 신대사를 두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 신들의 조상이 없을 수 없으므로, 개벽신이 나타난다. 개벽신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신이므로, 남녀 부부가 있어서 자식들을 낳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천지를 부모로 간주하여 두 신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그 두 신도 본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이 두 신은 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설명하기에 이른다.⁸⁾

요컨대 신화란 가문의 시조, 나라의 건국자, 건국자의 조상에 대한 설명이며, 결국 그것은 현재의 연원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신대사에 나타나고 있는 신들은 자연물에 깃든 혼령이거나 의인화라고 보고, 역사상 위대한 인물의 반영으로 보는 입장에 반대하였다.

신들은 영혼 및 의인화된 신이다. (중략) 이들 신은 모두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대부분 보통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자나기⁹⁾와 이자나미는 그 본체가 거대한 나무이고 천지를 꿰뚫는 거인이다. 다카미무스비(高皇產靈神) 역시 高木神이라고도 하므로, 그 본체는 나무이다. 아마테라스(天照大神)는 태양이고, 쓰쿠요미(月讀神)는 달이며, 스사노오(素戔鳴尊)는 바람 혹은 大地이자 夜見國의 主神이다. 오쿠니누시(大國主神)는 出雲의 土豪와 같은 용사로 생각되지만, 그 본체는 國土의 魂이다. 스쿠나히코나(小彥名命)는 까치이고, 아마쓰미(大山津見神)의 본질은 큰 뱀이고, 와타쓰미(綿津見神)의 본체는 상어이다.¹⁰⁾

8) 白鳥庫吉, 앞의 책, 197~198쪽.

9)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다양한 이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의 근간을 이루는 일본어로 나타내고자 한다. 伊斯那岐를 ‘이자나기’, 素戔鳴神을 ‘스사노오’와 같이 표기할 것이다.

10) 白鳥庫吉, 앞의 책, 537~538쪽.

또한 오게쓰히메(大宜津比賣, 保食神)는 살해당한 뒤에 그 몸에서 5곡이 출현하였으므로, 곡물의 혼령을 뜻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신대사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은 모두 신이고 인간이 아니며, 이러한 신들은 자연물의 혼령, 혹은 그것을 의인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예 추상적인 관념에 이름을 붙인 것도 있는데, 이러한 신들을 지금까지 대부분 통상적인 인간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신대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¹¹⁾ 또한 신들이 사는 세계로 등장하는 고천원 역시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로 단언하였다.

우주의 혼령이나 이를 의인화한 신이 사는 세계는 현세로 한정할 수 없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顯國이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사고하고 또한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출현한다. 이러한 세계는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없는 幽冥한 정신적인 세계이다.

이 세계 중에서 광명의 세계이자 善事의 근본인 세계가 천상에 있다고 생각한 高天原이다. 암흑의 세계, 세계의 모든 악이 일어나는 곳으로 생각한 곳이 夜見國 즉 지하의 세계이다. 인간이 실제 생존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가운데 두고 위에는 천국, 아래에는 지(하)국을 둔 것이다.

이러한 3가지의 세계를 설정하는 것은 세계 민족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국민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즉 현국은 현실의 세계이며, 천국과 지국은 정신상 내지 신념상으로만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를 幽界라고 한다. 유계가 인류의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도, 실은 현실세계의 제상을 설명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한 욕망·희망으로부터 생긴 것이다.¹²⁾

이처럼 신대사에 기록된 사건은 객관적으로는 이 현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주관적으로는 상대인의 신념을 밝힌 것이며, 그것은 관념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았다. 이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영험담과 같

11) 白鳥庫吉, 앞의 책, 538쪽.

12) 白鳥庫吉, 앞의 책, 540~541쪽.

이 생각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실이며, 이를 시간적 상속적으로 발전한 사실은 아니나, 이를 공간적 병립적 주관적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記紀(원문 神典)¹³⁾의 기록은 역사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역사처럼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상속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형성된 당시 사람들의 사상, 신념, 풍속, 습관, 정치상의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사실일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이처럼 그는 신화가 곧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현실 세계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 신화의 목적

신화가 사상이나 관념의 산물이라면,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 白鳥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현실 세계와 관념 세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신화에는 다양한 세계가 나타난다. 白鳥의 분류에 따르면 관념적인 세계(幽界)로는 天神들의 세계인 高天原을 비롯하여 野見國, 根國, 滄海原이 있다.

野見國은, 광명의 세계이자 善의 근본을 이루는 고천원에 대하여, 암흑의 세계이자 악이 발생하는 곳이자 지하 세계라고 보았다. 根國은 黃泉國과 입구가 같다는 기록도 보이고, 지하가 아니라 海原의 끝 혹은 바다 속이라는 기록도 보여서 다소 애매하지만, 惡靈과 邪鬼의 근원으로 보기도 한다. 오쿠니누시가 根國에서 스사노오의 뱀박을 받으며 스세리히메를 데리고 나온 곳이라는 내용도 보인다. 海原은 바다 아래의 세계, 호오리

13) 원문에서는 神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古事記와 日本書紀를 합쳐서 記紀라고 표기하고자 한다.

14) 白鳥庫吉, 앞의 책, 547~548쪽.

(火遠理, 山幸彦)가 낚시바늘을 찾으려고 들어간 바다 속의 공간을 말한다. 이곳은 顯國의 일부이자 夜見國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⁵⁾

상세국에 대해서는 천국, 지국, 해국, 현국에 인접해 있는 곳에 있으며, 현국에 속하는 영역이다. 상세국은 현국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므로, 때로는 사람이 이곳에 갈 수도 있었다. 다만 이곳에 사는 주민은 神人이나 仙人이다.¹⁶⁾ 그런 점에서 상세국은 현국과 유계의 경계를 이루는 영역일 것이다. 유계는 신들의 영역이고 현국은 인간들의 영역인데, 상세국은 불로불사의 세계이고 인간 중에서 신선이 되어 불로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상세국이야말로 신과 인간의 영역의 경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顯國의 중심에는 葦原中國이 있고 니니기(邇邇藝命)는 이곳에 내려왔다. 그는 위대한 산의 신인 오야마즈미(大山津見神)의 딸과 혼인하여 호데리(火照命)와 호오리(火遠理命) 등을 낳았다. 호오리는 다시 위대한 바다의 신인 와타즈미(綿津見大神)의 딸 도요타마히메와 혼인하여 우가야후키아에즈(鵜葦草葦不合命)를 낳았고, 우가야후키아에즈는 다시 이모인 다마요리히메와 혼인하여 호호데미(이와레히코, 神武天皇)을 낳았다. 히무카를 출발하여 야마토에 들어온 호호데미는 미모로야마(三諸山)의 신인 오모노누시(大物主神)의 딸과 혼인하였다.

일본신화는 각지역 간의 현실적인 결합 혹은 통합, 이를 상징하는 천신과 국신의 혈연적 결합을 내용으로 하는데, 천황가가 국토를 지배하는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세력 및 그들이 모시는 신도 천황가의 국토 지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아울러 주장하는 신화이다. 천황가에 복속하고 천황가의 시조신에게 복종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의 지배자와 그 지역의 토착신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

15) 白鳥庫吉, 앞의 책, 541쪽.

16) 白鳥庫吉, 앞의 책, 541쪽.

실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신화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신화이다.

현실공간적으로 보면, 평지·산악·변방·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마토 지역을 포괄한다. 관념공간으로서도 高天原·葦原·海原·野見國·根國 등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 모든 공간에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및 그 후손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모든 지역적·공간적·관념적 다양성을 극복하고 단일한 환상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신화의 존재 이유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1〉 각 공간을 지배하는 신들

관념	공간	일본 고유의 신	중국사상의 신
高天原	天國	아마테라스·쓰쿠요미	이자나기(父) = 다카미무스비 = 高木神
葦原	中國	오쿠니누시/니니기	스사노오 ¹⁷⁾ /아마테라스의 후손
夜見國	地(下)國	스사노오	이자나미(母)
	根國	스사노오	이자나미(母)
常世國	스쿠나히코나(小彥名)		이자나기 다카미무스비(父)
海原	水國	와타즈미	이자나기·이자나미(父母)
	山國	야마즈미	이자나기(祖父)
	大和	오모노누시의 딸	이자나기의 후손과 혼인

3. 신화의 해석

白鳥 이전에도 일본 신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면, 北畠親房·一條兼良·山崎暗齋 등은 불교나 유교의 교의와 학설로 일본 신화를 해석하려고 하였고, 新井白石은 신을 인간이라고 여기고 신화는 비유와 우언을 통해서 나타낸 上代の 역사이므로, 인간에 의한 사건으로

17) 『고사기』에 의하면, 스사노오의 5대손인 天之冬衣神의 아들로 되어 있으나, 어머니는 스사노오의 딸인 스세리히메(須勢理毘賣)로 되어 있어서, 극히 모순된 계보임을 알 수 있다.

해석하고자 하였다. 本居宣長는 신화는 초인간적 신들의 불가사의한 행위를 기록한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신용하지는 입장을 취했다. 그밖의 메이지시대 신화학자들은 대체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전설로 보기도 하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미개한 사회에 남아있는 관념체계로 보기도 하였다. 白鳥 역시 신화는 고대인들의 사상과 신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역사적 사실 등으로 해석하려는 기존의 연구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신대에 기록된 사건은 객관적으로는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니지만, 주관적으로는 상대인의 신념을 기록한 것이므로, 그것은 사상(思想) 상에서 일어난 사실이다. 이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신령스러운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실이다. 시간적 상속적(相續的)으로 발전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를 공간적 병립적 주관적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중략) 그 이야기가 생성된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 신념, 풍속, 습관 정치상의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신전에 기록된 내용은 주관적으로 보면 거기에 역사상의 사실이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⁸⁾

신화는 그 성질상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적인 것이며 불합리한 것이 많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불교의 이론, 한학(유교)의 이론 혹은 역사적으로 보려는 것도 모두 견강부회하는 주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本居宣長 등은 신대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일체의 설명을 비판하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平田篤胤는 중국과 인도의 전적을 섭렵하여 그 나라의 신과 성인들이 대부

18) 白鳥庫吉, 앞의 책, 547~548쪽.

19) 白鳥庫吉, 앞의 책, 534~544쪽

분 일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거의 어린아이의 장난에 속하는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²⁰⁾

또한 일본의 신화 연구를 개관하면서, 메이지 이전에는 高天原을 新井白石가 常陸, 吉見幸和는 大和에서 高天原을 찾았으나, 메이지시대의 학자들은 주로 외국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오쿠니누시(大國主命)가 대팔주국을 통치한 신이라고 記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대팔주국 즉 일본국이 오쿠니누시의 영토였다고 한다면, 이를 정복한 天孫은 당연히 외국에 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白鳥는 일본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건너온 황족에게 지배당하게 되었다는 해석은 일본 국민에게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거기에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일본에는 이즈모민족, 야마토민족, 구마소민족과 같은 이민족이 있었던 셈이 되고, 고고학자나 토속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설을 채용하고, 그런 관점에서 유물을 해석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신화는 신화이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일본의 신화도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연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러한 그의 입장에 따르면 高天原은 일본 내의 어떤 특정지역이나 한반도와 같은 외국일 수가 없다. 그래서 白鳥는 고천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高天原은 광명의 신, 至善한 신들의 세계이며, 모든 선은 이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野見國은 암흑의 신, 至惡의 신이 사는 세계이므로, 모든 악은 이 세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명암의 두 세계가 대립하

20) 白鳥庫吉, 앞의 책, 535쪽.

21) 白鳥庫吉, 앞의 책, 536~537쪽.

여 인간의 신념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顯國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선악생사가 서로 교차하고 혼합하는 세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신대사에 고천원과 야견국 사이에 현국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재한 이유이다. 그런 까닭에, 이 세 나라 중에서 천국과 지국은 유계 즉 관념사상 상의 세계이며, 현국은 현실의 세계이다(제5편 고천원과 천손 강림의 장).²²⁾

즉 고천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본 것이다. 또한 白鳥가 「神代史の新研究」에서 극력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화와 자료를 동원하여 일본의 신화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일본의 신화도 일반적인 신화라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白鳥의 일본신화 연구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전통적인 신화 연구와 근대적 신화 연구의 접점을 이루었다.
- 나) 비교신화학과 비교언어학을 도입하였다.
- 다) 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보지 않고, 천황가의 일본 지배 정당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았다.
- 라) 천황가와 국민의 역사를 분리하였다.
- 마) 津田左右吉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²³⁾

IV. 일본 신화에 대한 이해

白鳥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를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

22) 白鳥庫吉, 앞의 책, 413~414쪽.

23) 津田左右吉, 「緒言」 『神代史の新しい研究』, 二松堂書店(東京), 1913. 2쪽

려올 때 사용하였다는 天浮橋는 안개·구름·무지개 등의 자연현상 중 하나 일 것이고, 天磐船·天鳥船 등도 모두 구름이나 안개이거나 혹은 바람으로 간주하였다.²⁴⁾

또한 白鳥는 일본의 신화가 세계의 신화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신화와 광범위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 1〉 델피의 옴팔로스



〈그림 2〉 아폴로의 원주(알바니아)

1. 세계신화와의 공통성 - 오노고로시마와 포(胞)

記紀 신화에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오고로시마 혹은 아와지시마를

24) 白鳥庫吉, 앞의 책, 291~292쪽.

胞(에, 에나)로 삼았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 白鳥는 세계 각국의 자료를 동원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자나기는 천신이고 이자나미는 지신이며, 이들의 교합은 땅에 솟은 혹은 박혀 있는 큰 나무로 형상화된다. 큰 나무는 천신인 이자나기이자 교합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胞는 바로 하늘과 땅의 접합점이다. 인간들은 그 접합점과 그 위에 서있는 나무를 숭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림 3〉 아폴로와 오벨리스크(옴팔로스 위에 세운 원주)

그리스에서는 델피(델포이) 등에는 옴팔로스 즉 대지의 배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하늘 기둥으로 일컬어지는 Agyieus 즉 나무를 세웠던 흔적이 발견된다. Agyieus 원주는 태양의 신 아폴로의 상징으로서 아폴로의 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원주를 나타낸 화폐를 보면 바깥이 월계수로 장식되어 있는데, 월계수는 아폴로가 사랑한 다프네가 변신한 모습이다. 다프네는 샘·개울 등 물의 요정이고 아폴로의 구애를 받다가 월계수나무로 변했다. 이때 그녀를 월계수나무로 만든 것은 아버지이자 강의 신인 페네우스 혹은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였다고 한다. 다프네는 물의 요정이지

만, 그의 아버지나 보호자는 강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었고, 물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한편 실제로 아폴로의 심볼로 월계관과 배꼽돌(navel stone) 등이 있다. 또한 델피의 신전은 원래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를 제사지내던 곳이었으며, 그의 아들이자 뱀의 형상을 한 파이톤이 수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폴로가 파이톤을 제압하였다. 따라서 델피는 아폴로를 섬기는 곳이지만, 원래 지신과 관련이 있는 신전이 있었고, 이 두 신이 결부되는 장소가 된 셈이다.

대지의 중심과 그곳에 서있는 나무에 대한 숭배는 그리스만이 아니라 로마나 게르만민족에게서도 발견된다. 거대한 기둥을 뜻하는 색슨어의 *irminsul* 역시 거대한 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당 민족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로마시의 *mundus*는 오곡을 보관하는 지하 창고였는데, 종자를 이곳에 넣어두면 땅의 기운을 받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여겼다.²⁵⁾ 이처럼 땅 속의 특정한 공간이 땅의 기운을 받아들여 오곡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신앙이나 제의가 두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로마의 사례뿐만 아니라 아리조나의 모퀴(Moqui)족의 사례까지 동원하였다.

이러한 입증과정을 통하여 천지어주(天之御柱)는 거대한 나무이자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이 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하늘과 땅이 접점이 곧 胞(그리스 등의 움팔로스)이며 이는 동시에 땅 즉 음의 표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의 비교신화학의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세계신화학(world mythology)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당산이 있고 당산나무가 서 있거나, 각 집에는 흙을 쌓은

25) 白鳥庫吉, 앞의 책, 324~325쪽.

業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남선, 불함문화론).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제장인 社가 있고, 각 집안의 제장으로 中霤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중국의 경우 토지의 신을 제사지내기 위한 토단(社)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그 토단 위에 건물을 지어 햇볕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아래로는 나무를 박아 넣어 땅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단 위의 나무도 없애 버렸다. 이로써 보면 중국의 社 역시 땅이 역시 나무를 통하여 하늘과 소통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어나기와 이자나미의 접점을 가리키는 胞의 일본 훈은 ‘에’ 혹은 ‘에 나’인데, 이는 뿌리(根)를 뜻하는 ‘네’와 연관이 있고, 이는 다시 중심(中)을 뜻하는 ‘나카’ 즉 중심이 있는 곳, 중심이 되는 곳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²⁷⁾

〈표 2〉 하늘과 땅의 결합

천신	이어나기	아폴로	天陽	하늘
나무	高木	Agyieus圓柱·(월계수)	松·柏·栗 등	당산나무
접점	胞	Omphalos·臍	社	당산·엽
지신	이자나미	가이아·파이톤·다프네	地陰	땅

白鳥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일본의 『서기집해(書紀集解)』·『대전제축사(大殿祭祝詞)』를 비롯하여, 『설문해자』·『강희자전』·『예기』·『전한서』·『후한서』·『사기』·『위서(魏書)』·『위지(魏志)』·『송사』·『죽서기년』·『백호통』·『서경』·『시경』·『서전(書傳, 孔安國)』·『공양전(公羊傳)』·『곡

26) 白鳥庫吉, 앞의 책, 317~322쪽.

27) 白鳥庫吉, 앞의 책, 311쪽.

량전(穀梁傳)·『논어』·『목자』·『여씨춘추』·『독단(獨斷)』·『통전』·『초학기』·『삼례의종(三禮義宗, 『唐會要』 인용), 『마크코폴로의 견문록』, W. Drexler, Z. Cook, H. Goiten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노코로시마를 胞로 삼았다는 일본신화의 내용에 대해서, 유럽 등의 신화를 원용하여, 胞가 배꼽 즉 omphalos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오노코로시마는 이자나미(伊斯那美) 즉 地神이자 陰神의 胞胎라고 본 것이다.²⁸⁾

2. 신화에 드러나는 목적성

白鳥가 파악한 일본신화의 중요한 특징 중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목적성이다. 예를 들어 일본신화에서는 아마테라스의 손자가 강림한 곳이나 神武가 동정을 개시한 곳이 북규슈 동남단의 히무카(日向, 휴가), 아마테라스의 동생인 스사노오가 내려와서 지배한 곳이 이즈모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白鳥는 야마토왕권이 이들 지역을 순무하고 원활하게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쿠니누시(大國主命)가 이즈모에 도움을 두고 대팔주국(大八洲國, 일본열도)을 지배하고 있었고, 니니기로부터 진무 천황에 이르는 삼대에 걸쳐 황손(皇孫)은 규슈의 남부, 즉 현재의 미야자키현에 해당하는 지방에 근거를 두고 대팔주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 신대사의 표면에 나타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일까? 이즈모는 산음도(山陰道)의 중앙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동해(원문, 일본해)에 면하고 남은 고산준령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일본열도의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가기가 쉽지 않았다. (중략) 이 지역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 격리되어 있어서, 이곳을 근거로 일본의 다른 지역을 지배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역사시대에 들어서 이 지역을 근거지로

28) 白鳥庫吉, 앞의 책, 306~326쪽.

한 제후로서 큰 세력을 떨친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키니누시가 이곳에 근거하여 대팔주국을 지배하였다는 것은 실제상 역사적 사실로 결코 믿을 수 없다.²⁹⁾

히무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가고시마나 미야자키도 교통이 가장 불편한 곳이므로 이곳에 근거한 세력을 쳐서 깨트리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마소(熊襲)가 완강하게 야마토정권(원문 大和朝廷)에 반항하여 오랫동안 그 세력을 유지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이곳을 근거지로 다른 지역을 지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記紀에서 니니기로부터 신무천황까지 3대동안 이곳에서 대팔주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역사상으로나 지리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³⁰⁾

야마토왕권은 오기내(五畿內)를 본거지로 삼아, 동으로는 동해·동산·북륙도의 일부, 서로는 사국(四國)·산양(山陽)·북규슈의 북반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세력이 되었으나, 당시 이 세력에 반항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있었던 것은 이즈모(出雲)와 규슈 남부, 그리고 이민족인 동북부의 아이누밖에 없었다. 게이코(景行) 천황의 아들 야마토타케루(日本武尊)의 정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야마토왕권에 항복한 이즈모와 구마소(熊襲)가 신대에 이미 천손의 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³¹⁾

그렇다면 왜 記紀에서는 야마토왕권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한 지역을 황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였을까? 白鳥는 원래 대팔주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야마토왕권이 야마토라는 지역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 고천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팔주국은 이즈모

29) 白鳥庫吉, 앞의 책, 548쪽

30) 白鳥庫吉, 앞의 책, 549쪽.

31) 白鳥庫吉, 앞의 책, 549~550쪽.

에 근거한 오쿠니누시(大國主命)의 영토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³²⁾ 고천원에서 여러 차례 신을 보내어 오쿠니누시에게 항복을 권유한 것이나 다케미카즈치(武甕槌神)가 항복하도록 한 것은 야마토왕권이 여러 차례 군사를 보내어 이즈모를 공격한 사실과 최종적으로 이즈모의 항복을 받아 낸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³³⁾

실제 역사로 보면, 이즈모와 구마소도 야마토정권으로서는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불굴의 강적이었을 것이지만, 이즈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오쿠니누시의 아버지는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이고, 구마소의 시조로 되어 있는 호노스세리(火酢芹)는 호호데미(火火出見)의 형으로 되어 있다. 이는 記紀(원문은 神典)의 정신이 이 두 적국과 타협하고 회유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야마토왕권의 조상과 적국의 조상은 혈족 관계에 있다고 함으로써 그 지역 인민들을 안도하도록 하고, 충량한 신민으로 이끌기 위한 정치상의 회유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³⁴⁾

나아가서 이즈모와 구마소가 복속한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記紀가 만들어진 시대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신전의 내용에 의하면 이 두 지역이 야마토왕권의 명령을 받들고 황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³⁵⁾

주아이(仲哀) 천황 때 구마소를 정벌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정벌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4세기 중엽까지는 구마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³⁶⁾ 왜왕 武의 상표문에서 “西服衆夷六十六國”이라고 한 것이 북규슈 지역의 세력들이라고 보면, 5세기 중후엽 경에 구마소를 정복하

32) 白鳥庫吉, 앞의 책, 550쪽.

33) 白鳥庫吉, 앞의 책, 550~551쪽.

34) 白鳥庫吉, 앞의 책, 551쪽.

35) 白鳥庫吉, 앞의 책, 551쪽.

36) 白鳥庫吉, 앞의 책, 552쪽.

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즈모와 구마소를 제압하기에 이르는 것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세력을 잃게 된 긴메이(欽明) 이후로 보았다. 이 때 야마토왕권이 본격적으로 일본열도 내부에 있는 적대세력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³⁷⁾ 이처럼 白鳥는 일본신화가 야마토왕권에 의한 지방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중국 사상의 영향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白鳥가 일본신화가 중국사상의 영향 속에서 크게 개편되었다고 파악한 점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일본신화에서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아파테라스, 오른쪽 눈에서 쓰쿠요미가 태어났다는 내용은 중국신화에서 盤古가 죽자 그 왼쪽 눈에서 태양이, 오른쪽 눈에서 달이 태어났다는 『述異記』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白鳥는 중국의 사상사를 개관하면서 전국시대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는 두 가지 사조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인륜 오상을 중심으로 도덕교 즉 유교와 음양오행 등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고 무격 등의 신앙을 횡으로 삼은 도가의 주장 즉 도교이다. 유교는 주로 도덕이 중심이고 신선설을 주장하는 도교는 종교적인데, 남북조시대에 들어서 도가의 논리가 왕성하게 나타났고, 緯書라고 부르는 문헌 등이 다수 등장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남조의 문화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회남자』·『삼오력기』·『습유기』·『침중서』와 같은 책이 많이 전해졌고, 특히 도교적인 신선경 사상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³⁸⁾ 중국 사상의 영향으로

37) 白鳥庫吉, 앞의 책, 557쪽.

38) 白鳥庫吉, 앞의 책, 576~577쪽.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벽신 17柱의 배열은 조화삼신, 5주의 別天神, 신세 7대와 같이 3·5·7이라는 수의 배열이 나타난다. 3과 5는 일본에서도 원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이지만, 7은 곱끄러운 수로 생각하였다는 것이 白鳥의 주장이다. 원래 일본의 聖數는 8이고, 8이 들어간 많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7을 성스러운 수처럼 여기는 것은 중국의 관념이라고 보았다.

8이 들어간 용례로는 일본 전체를 가르쳐 大八洲國, 신들의 전체 수를 80신, 800만신, 길거리를 八衢, 여러 날은 八日八夜, 큰 뱀은 八股八尾, 큰 거울은 八咫鏡, 큰 옥을 八尺瓊勾珠, 창도 八千矛, 신의 이름에도 八重事代主가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8을 성스러운 수로 생각하였는데, 이 수는 나누어서 계속 짝수가 되는 유일한 수이기 때문에 성스럽게 생각하였다고 白鳥는 이해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1·3·5·7·9는 양수, 2·4·6·8·10은 음수로 간주하고, 음수보다 양수를 우위에 두었다. 그 중에서도 7과 9는 양수 중에서도 각각 少陽과 老陽이라고 불렀으나, 그 중에서도 7이 가장 존중되던 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적인 관념이 일본으로 들어와 8 대신에 7이 경사스러운 수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사루타히코(猿田毘古神)의 풍채에 대하여 그 코의 길이는 7咫이고 키는 7척 정도라는 내용이 『일본서기』 신대권에 보인다. 이처럼 7이 성스러운 수로 쓰이게 된 것은 중국 사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³⁹⁾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중국 사상의 영향은 태초관이다. 일본서기 신대권의 첫 머리에서는 태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지 않고 음양이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은 혼돈된 상태로 마치 계란처럼 그 형태가 만들어지지

39) 白鳥庫吉, 앞의 책, 205쪽.

않았으며, 또한 그것은 희미하고 넓어서 사물의 윤곽은 아직 그 속에 담겨 있는 상태였다. 마침내 맑고 밝은 부분은 가로로 길게 뻗어 나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부분은 내려앉아 땅이 되었다. 그러나 맑고 섬세한 것은 한 덩어리가 되기 쉬우며, 무겁고 탁한 것은 굳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하늘이 먼저 생겨나고 땅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그런 연후에 그 속에서 신(神)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르길 천지가 개벽할 당초에는 토양이 떠다니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이 떠도는 것과 같았는데, 그때 하늘과 땅의 중간에 하나의 물체가 생겨났다. 그 형태는 갈대의 싹과 같았으며 이것이 신이 되었는데 바로 구니노토코타치(國常立尊)라는 신이다.⁴⁰⁾

첫구절인 “天地未剖, 陰陽未判”은 『회남자』 倣眞訓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⁴¹⁾ 또한 “渾沌如鷄子”는 『태평어람』에 인용되어 있는 『三五歷記』의 “天地渾沌如雞子”를 차용한 것이다. 또 “溟滓而含牙”는 『春秋命曆序』의 “溟滓而始牙”, “天先成而地後定”은 『회남자』 천문훈의 “天先成而地後定”을 이끌어온 것이다. 신의 이름에서도 아미노미니카누시(天之御中主神)는 『物理論』에서 北極天之中에 보이는 사상과 명칭을 취한 것이라고 보았다.⁴²⁾

또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각각 중국 신화 속의 天皇氏와 地皇氏, 伏羲와 女媧, 東王父·西王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천황씨·지황씨의 1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목성이 12년마다 천구를 일주하는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천황씨·지황

40) 『일본서기』 신대권, “古天地未剖, 陰陽不分, 渾沌如鷄子, 溟滓而含牙. 及其清陽者, 薄靡而爲天, 重濁者, 淹滯而爲地, 精妙之合搏易, 重濁之凝竭難. 故天先成而地後定. 然後, 神聖生其中焉. 故曰, 開闢之初, 洲壤浮漂, 譬猶游魚之浮水上也. 于時, 天地之中生一物. 狀如葦牙. 便化爲神. 號國常立尊.”

41) 白鳥庫吉은 이 구절을 淮南子 天文訓에 보이는 天墜未形을 부연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떨어질 墜가 아니고 땅 墜가 옳다. 앞의 책, 235쪽.

42) 白鳥庫吉, 앞의 책, 237쪽.

씨가 12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신화에 나오는 남녀 8대의 신 역시 이자나기(高皇產靈)와 이자나미(神皇產靈)의 각각 다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⁴³⁾

〈표 3〉 일본 신과 중국 신의 대비

日本書紀	이자나기	이자나미	8대 對偶南神	8대 對偶女神
	陽神 8柱	陰神 8柱	이자나기의 속성	이자나미의 속성
	高皇產靈	神皇產靈		
春秋命曆序	天皇氏 天靈	地皇氏 地靈	12頭처럼 여러 속성을 표현	12頭처럼 여러 속성을 표현
	木德 12頭	12頭		
春秋合誠圖	伏羲	女媧		
木公傳·金母傳	木公·東王父	金母·西王母		
	高木神	地神		
	樹木崇拜	(土地崇拜)		

이처럼 白鳥는 記紀의 작자가 木德을 만물의 시원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음양설을 채용하고, 개벽신에 관한 내용은 그러한 사상 위에서 結構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까닭에 다카미무스비나 가무미무스비가 모두 나무의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⁴⁾

이자나기 역시 무스비와 일체이며, 그 이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즉 다카미무스비나 아마노미하시라(天之御柱)나 이자나기는 모두 같은 신의 다른 이름 혹은 다른 측면이다. 이자나기 이자나미는 다카미무스비와 가무미무스비와 동체이다. 이름만 다른 것이다.⁴⁵⁾

43) 白鳥庫吉, 앞의 책, 240~241쪽.

44) 白鳥庫吉, 앞의 책, 462쪽.

45) 白鳥庫吉, 앞의 책, 481~482쪽.

‘미무스비’는 창조와 생성을 상징하는 신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되어 있으나, 葦原中國 평정과 천손강림 때 고목신 등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천지개벽 과정에서 창조·생성에 관여한 신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뿐이다. 따라서 무스비와 이자나(기·미)는 동일한 신격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무스비와 이자나기·이자나미는 원래 일본인들의 머리 속에서 인출된 신이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신이다. 즉 다카미무스비 이하 남신 8신은 일체이고, 중국의 천황씨 혹은 복희씨에 해당하고, 가미무스비 이하 여신 8신은 역시 일체로 중국의 지황씨나 여와씨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카미무스비와 이자나기는 모두 木德에 해당하는 신이고, 동방 일출처와 연관이 있는 신이다. 동방은 목덕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부상이라는 큰 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여겼다. 신으로는 복희씨라고 하고 도교의 동왕부도 역시 木公이라고 하였다. 다카미무스비는 만물생성의 근원을 이루는 신이며 고목신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목덕을 나타내는 신이다. 수목신을 창조와 생성의 신으로 삼은 것은 중국 사상의 영향이다.

그는 이처럼 신대사에 나오는 신 중에는 외국의 사상, 특히 중국 사상에서 온 것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개벽신은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을 근거로 한 도가신을 빌어온 것이므로, 일본의 고유신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고유신은 아마테라스·쓰쿠요미·스사노오이고, 그 부모는 중국적인 외래신(高皇產靈尊)으로 본 것이다.⁴⁶⁾

白鳥의 생각에 덧붙이자면, 고사기·일본서기의 缺史 8대⁴⁷⁾와 미나카노누시(御中主神)에서 이자나기·이자나미에 이르는 신이 역시 8대인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8·80·800만 등은 무한히 많다는 뜻이다. 즉 첫 천황인 진무(神武)가 출현한 것이 아득한 과거였다는 사실

46) 白鳥庫吉, 앞의 책, 542쪽.

47) 直木孝次郎, 『神話と古事記・日本書紀』, 吉川弘文館, 2008, 190-222쪽.

을 강조하기 위하여 8대를 설정하였고, 이 8대는 숫자로서 8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나카누시에서 이자나기·이자나미에 이르는 8대 역시 무한히 긴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뜻이며, 실제로 이들 신이 있었다고 여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8대의 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내용만 있는 점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8대에 걸친 굳이 신세 7대라고 파악한 점에서도 일본 신화에 중국 사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天津神의 계보(괄호 안의 8대로 추정된 순서)

天津神			
別天津神		神世七代	
造化三神		三貴子	
天之御中主神 高御產巢日神 神產巢日神(1)	宇摩志阿斯訶備比 古遲神(2) 天之常立神(3)	國之常立神(3) 豐雲野神(4) 宇比地邇神·須比智邇神(5) 角杵神·活杵神(6) 意富斗能地神·大斗乃弁神(7) 淤母陀疏神·阿夜訶志古泥神(8) 伊邪那岐神·伊邪那美神	天照大神 月讀命 須佐之男命

IV. 단군신화의 이해

일본에서 단군에 대한 인식은 스사노오(素戔嗚神)의 아들인 이소타케루(五十猛神)와 동일시한 落合直澄⁴⁸⁾와 환웅을 스사노오로 단군을 스사노오의 아들 이소타케루로 본 林泰輔⁴⁹⁾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48) 落合直澄,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藏版(東京), 1888. 23~25쪽.

러나 那珂通世는 환웅·단군을 스사노오·이소타케루로 간주하는 견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단군전설은 중국 사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전적으로 조선인이 만든 것으로 보았다.⁵⁰⁾ 단군신화의 승려 조작설은 바로 나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그 역시 단군의 이름인 왕검은 평양의 고명인 王儉의 儉을 사람 인 변의 儉으로 바꾼 것이고, 이 전설은 불법이 동쪽에 전해진 후 승려가 날조한 것으로 조선의 고전설이 아니라고 언급하였을 따름이다. 결국 단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白鳥에서 시작되었다.

白鳥는 단군신화와 관련하여 「檀君考」와 「朝鮮の古傳説考」라는 글을 남겼다.⁵²⁾ 白鳥의 「檀君考」는 1894년에 쓴 글로, 그의 나이 29세 때의 일이다. 그리고 그가 일본신화에 대한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년 후인 1913년으로 생각된다. 이때 동방협회에서 행한 강연의 요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津田左右吉가 그의 강연을 듣고 「神代史の新しい研究」라는 글을 발표하였다.⁵³⁾

1. 승려에 의해 조작된 신화

白鳥는 방법론적으로 전설이나 전래 구비에서 어떤 부분이 古傳이고 어떤 부분이 후세의 架構인지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못

49)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藏版(東京), 1892, 58~59쪽.

50) 윤승준, 「육당 최남선의 ‘단군론’ 연구」 『인문학연구』 37, 2009, 294~301쪽. 일본 학자들의 단군부정론의 전체적인 흐름은 해당 논문이 크게 참고가 된다.

51)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학의 여명과 근대적 심상지리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 16-1, 2000, 104쪽.

52) 조현설은 「檀君考」가 오리엔탈리즘을 수반한 동양사학의 형성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현설, 앞의 논문, 106~110쪽.

53) 津田左右吉, 「緒言」 『神代史の新しい研究』, 二松堂書店(東京), 1913, 2쪽.

하면 진위를 뒤집어 보게 되고, 순수하고 잡박한 것을 오해하여 끝내 오류를 후세까지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조선의 고전 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하였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고전 설 중에서 가장 妄誕, 즉 망녕되고 황탄하기 그지없는 것이 단군의 전설이라고 글의 첫머리에서 단언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기록 중에서도 『삼국유사』에 실린 「古記」가 가장 망탄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이 전설의 본색을 가장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단군에 관한 기록은 중국 사서에 보이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 각종 기록에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위씨조선 이후에는 결국 순연한 한나라 영토가 되었으므로 이를 조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땅의 일부분으로 보는 편이 온당하지 않을까 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단군의 사적으로서 당시에 구전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상서』·『사기』·『한서』 등에도 기재되었어야 할 것인데, 오로지 三國의 고기 및 『위서』에만 보이는 것은 이상하며 이 전설에 대하여 의아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白鳥의 이러한 판단은 대단히 자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창조신화에 해당하는 盤古에 관한 내용도 『상서』·『사기』·『한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尙書』 등에도 伏羲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사기』에서 처음으로 八卦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만 나타날 뿐이고, 女媧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女媧의 경우는 『한서』의 「古今人表」에 처음 그 이름이 보일 뿐이다. 伏羲·女媧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後漢 이후의 일이다. 중국의 신화에 대한 기록이 이러한 상황인데, 단군에 대한 기록이 『상서』·『사기』·『한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54) 白鳥庫吉, 「朝鮮의古傳説考」, 1894. 이 논문은 「檀君考」(學習院 輔仁會雜誌 게재)의 요지만 드러낸 것이다.

고 단정한 것은, 『상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盤古·伏羲·女媧에 대한 신화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삼국유사』의 단군에 관한 기록에 대하여 이미 那珂通世는 『朝鮮古史考』에서, “이 전설은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진 후, 승도의 날조에서 비롯된 망탄한 것으로 조선의 古傳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하였다.⁵⁵⁾ 중학시절 那珂의 제자이기도 하였던 白鳥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다만 那珂는 이를 승려의 망설로서 도움될 것이 없다고 폄하하였으나, 白鳥는 그러한 망설에는 망설로서 상당히 궁리한 면이 있고 또한 다른 전설과 연관해서 다소의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천착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태백산은 평안도의 묘향산이라고 한 일연의 의견에 따랐다. 『동국여지승람』에서 묘향산은 불교가 융성한 곳이고 또한 香木이 많다고 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⁵⁶⁾ 『법화경』 등의 불경에 牛頭栴檀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불교와 전단향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⁷⁾ 실제로 전단목으로 만든 불상을 조선 초기에 대자암으로 옮겨온 기록들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나 조선에 전단목이 자생하거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즉 전단목과 향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묘향산의 향목은 한반도에서 흔히 자생하는 향나무일 뿐 전단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고려나 조선에서 주로 불상이나 불교 관련 용품을 만드는 목재

55)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4, 1894,

56) 『東國輿地勝覽』, “妙香山一名太伯山, 古記, 其山有三百六十菴. 李樞記香山有鴨綠水南岸平壤府之北, 無遼陽爲界, 山之大莫與之比而長白之所分也. 地多香木, 各青而仙佛舊跡存矣.”

57) 『觀佛三昧海經』, “譬如伊蘭與旃檀生此利山中, 牛頭旃檀生伊蘭叢中, 牛頭旃檀雖生此林, 未成就故不能發香, 仲秋月滿罕從地生, 成旃檀樹, 衆人皆聞牛頭旃檀上妙妙香.”

로 사용되는 백단 혹은 자단이라는 부르는 나무로 생각된다. 다만 전단목을 약으로 쓴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무들이 자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가 향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향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동의보감』에서도 향나무는 향이 좋고 습기를 막아주며 벌레를 없애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을 뿐, 전단처럼 열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白鳥를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은 대부분 불경에 나오는 梅檀과 묘향산의 향나무를 바로 연관시키고 있다. 白鳥는 불경에 나오는 우두전단과 묘향산의 향나무와 연결시켜, 산이름을 묘향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처럼 전단목 아래에 하강하였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역시 불경에 등장하는 석제환인(제석)을 단군의 조부로 삼은 것으로 보았다. 今西龍 등의 견해의 원천을 이루는 생각들을 대부분 白鳥가 이미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불보살에 대한 공양이나 향료 불보살의 석장이나 관곽, 불보살의 목상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 우두전단에 대해서도 존송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런 까닭에 일본에서도 우두천왕으로 존송되기에 이르렀고, 몽고에서는 11면관세음보살에게 머무를 곳을 빌려준 이야기가 있다. 한반도에서도 우두전단에서 비롯된 단군이 개국의 시조로 숭앙되기에 이른 사실도 이상할 것이 없다.⁵⁸⁾

먼저 전단목을 축약해서 단목이나 단수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불경에서 梅檀木·紫檀木·白檀木·赤檀木의 용례는 빈번하게 보이지만, 이를 줄여서 檀木이라고만 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대정신수대장경』에서 檀木으로 검색하면 206개의 사례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梅檀木·紫檀木·白檀木·赤檀木·沈檀木·香檀木이고 誤用이라고 할 수 있는

58)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東京), 1894, 1~10쪽.

‘旃檀木’이나 ‘眞檀木’을 제외하면, 檀木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일일이 논증할 여유가 없지만, 처음 보이는 達磨栖那의 『大妙金剛大甘露軍拏利焰鬘熾盛佛頂經』을 제외하면 불경이라고 할 수 없는 문헌들이 대부분이다.⁵⁹⁾ 또한 당이나 일본에서 편찬된 이들 문헌에 보이는 檀木이 반드시 梅檀木 등의 약이라고도 할 수 없다. 檀樹의 경우는 단 한 차례 보이는데, 문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梅檀이라고 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檀樹라고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⁰⁾

이처럼 전단목·전단수를 축약해서 단목·단수라고 한 사례가 불경에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梅檀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의 candana를 음사한 것이고 남인도의 서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서고츠 산맥에서 자라는 상록교목으로 나무에서 향기가 나고 조각물의 재료로 쓰인다고 하였다. 만약 檀이라고만 하면 박달나무와 같은 다른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한 음사인 梅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白鳥는 일본 신화를 연구할 때는 한자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당시로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헌을 섭렵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檀과 妙香 이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白鳥의 단군신화에 대한 관심은 오직 檀君의 檀이라는 한 글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白鳥의 경우도, 단군신화의 여러 내용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59) <https://21dzk.l.u-tokyo.ac.jp/SAT2018/master30.php>. 2022년 2월 28일 검색.

60) 『大般涅槃經後分』(若那跋陀羅譯), 「機感茶毘品第三」, “(전략) 佛初成道恒河北岸, 一樹梅檀隨佛而生, 大如車輪高七多羅樹, 香氣普熏供養如來. 其香樹神與樹俱生, 常取此香供養於佛. 佛入涅槃此一檀樹即隨佛滅.”

내용만 뽑아내어, 불경의 내용과 연관시키고 있다. 스스로 전설이나 신화에 고래로부터 전승되는 부분과 후대에 부착된 가구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후대에 부착된 가구만 천착하고, 단군신화의 전체 모습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大妙金剛大甘露軍拏利焰鬘熾盛佛頂經 (□達磨栖那) (1)
 佛及金剛手佛等我今更說木印法於檀木上刻一八輻金剛輪於輪臍中書勃嚕
- 都表如意摩尼轉輪聖王次第念誦秘密最要略法 (□解脱師子) (1)
 皆一肘又取五淨塗其中復取蘇密及檀木一呪一燒稱己名數至百八一千八乃
- 密跡力士大權神王經偈頌 (□管主八) (1)
 似恒河數彩畫頂像除却阿鼻獄沈篋檀木工巧跋折羅寶杵執持杵像曼拏心香
- 弘贊法華傳卷第一 (□惠詳) (1)
 兄子銓在宅朝起忽於前院草中見一檀木浮圖蓋下有一鑿石佛像製作殊異梵
- 法華經傳記卷第五 (□僧詳) (1)
 兄子銓在宅朝起忽於前院草中見一檀木浮圖蓋下有一鑿石佛像製作異於中
- 法華經傳記卷第十 (□僧詳) (1)
 珞等外國用一百雜寶環珞抹香者抹檀木根莖等若和水以爲塗香擬沈水等若
- 冥報記中卷 (□唐臨) (1)
 兄子銓在宅朝起忽於前院草中見一檀木浮圖蓋下有一鑿石佛像製作異於中
- 金七十論卷上 (□眞諦) (1)
 無數量亦復應是無同性故者譬如破檀木其片雖復多檀性終是一變異亦如是
- 四十帖決卷第十 (□長安) (1)
 也云云薪薪者壇木事也儀軌薪後人檀木云長元年中決積薪本末師說如布茅
- 行林第六十四 (□靜然) (1)
 長寸法身相隨身作法料木經云以自檀木刻作其像云云長寸法經云身高五寸

〈그림 4〉 『大正新修大藏經』의 檀木의 용례

2. 단군신화의 조작 시기

白鳥는 단군신화가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직후에 승려가 불경 등의 지식을 근거로 조작한 신화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그가 환인과 단군을

연결시키는 데 사용한 자료는 『佛說立世阿毘曇論』이라는 불경이다.⁶¹⁾ 이 책은 眞諦라는 인도인이 번역하였는데, 그가 이 불경은 번역한 시기는 559년이고, 『삼국유사』에 인용된 『위서』의 편찬 시기는 551~559년이다.

그런데 그는 단군신화가 만들어진 시기를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진 372년부터 『위서』에 기록된 559년 사이 특히 장수왕대의 고구려 전성기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고구려의 조상을 堯舜과 나란히 두려는 용기가 생겼을 만한 시기로 보았다.⁶²⁾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그가 환인과 단군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불경이 번역된 시기가 559년이고, 『위서』가 편찬된 시기가 역시 그 무렵이라는 점이다. 南朝 梁에서 번역된 『佛說立世阿毘曇論』이 고구려에 전래되고, 그 이후 단군신화가 만들어지고, 다시 중국에서 고구려에서 갖 만들어진 단군신화를 채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음으로 왜 그 당시 고구려에 그러한 신화가 필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세기 초에 이미 추모왕이 천제(황천)의 아들이라는 탄생 및 건국신화가 확립되어 있었다.⁶³⁾ 白鳥는 장수왕대에 승려들에 의해서 단군신화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광개토대왕비는 장수왕이 세운 것이고 비문에는 불교적인 윤색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

61) 『佛說立世阿毘曇論』, “是天帝釋有二太子, 一名旃檀, 二名脩毘, 爲忉利天最大將軍, 亦昇象上.” 岡野潔 「インド正量部のコスモロジー文獻, 立世阿毘曇論」 『中央學術研究所紀要』 27, 1998, 55-91쪽.

62)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東京), 1894, 10쪽.

63) 『광개토대왕릉비문』, “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置, 履龍眞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혀졌던 광개토대왕비의 내용은 후대의 문헌사료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 거대한 비석을 세우는 단계(장수왕대)야말로 새로운 신화를 창작할 적기라고 할 만한데, 그런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 신화의 경우에도 일본열도에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중엽 경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문자로 기록되는 시작하는 7세기 말까지, 일본 신화에 불교적인 윤색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신화에 대한 불교적 윤색이 한반도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실제로 白鳥는 일본 신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단 한 편의 불경도 인용하지 않았다. 즉 일본신화는 불교의 영향이나 윤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神佛習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신화 속에는 불교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白鳥의 주장과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372년으로부터 불과 4~50년이 지난 시점에 불교 교리에 입각한 신화의 창작이나 윤색이 일어났으나, 일본열도의 경우에는 불교가 전래되고 150년이 지나도록 불교적인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셈이 된다. 715년에 越前國의 게히(氣比大神)의 신탁에 의하여 神宮寺가 건립되는 등, 나라시대 초기부터 국가 레벨의 신사에서 신궁사가 건립된다. 이는 신도가 불교에 포섭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古史記』(712)나 『日本書紀』(720)도 같은 시기에 성립된 문헌인데, 왜 이들 문헌 속의 신화는 불교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있었을까?

3. 일연의 주석

또한 단군신화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도, 설령 桓因이나 檀이나 妙香이 불교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곰과 호랑이, 산마늘과 쑥 등의

내용에도 불교적인 윤색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왜 단군신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栴因과 檀, 妙香에만 불교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이들 용어는 불교적인 요소가 분명한 것일까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인을 제석천, 태백산을 묘향산이라고 한 것은 일연이라는 승려가 판단한 것이지 단군신화의 본래 내용이 아니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수록하면서, 승려인 일연이 보기에 불교적인 용어 혹은 묘향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주석을 단 것일 뿐이다. 오히려 불교적인 관념이나 윤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일연에 의한 주석에 국한된다. 단군신화가 승려 일연에 의하여 불교적으로 굴절된 부분을 白鳥는 단군신화의 본래 모습이라고 착각하였을 뿐이다.

먼저 栴因에 대하여 일연은 帝釋이라는 주석을 달았지만, 주석의 문장은 ‘謂帝釋’으로 되어 있다. 이때 謂는 ‘말한다. 일컫는다, ~라고 한다’와 같은 뜻이 아니고, ‘생각건대(認爲·以爲)’라는 뜻이다. 즉 일연이 추정해 보건대, 환인이 제석인 것 같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삼국유사』 전체 주석에서 ‘생각건대’라는 뜻으로 謂를 쓴 사례는 3차례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주석은 “생각건대 제석일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옳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석을 “제석을 말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주된 무대가 된 太伯山이라는 산은 오로지 『삼국유사』에만 보일 뿐 다른 어떤 불경에도 보이지 않는 용어이다. 즉 단군신화에서만 보이는 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연은 이를 묘향산일 것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雜寶藏經』 등에 太白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서는 굳이 획수가 많은 太伯山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⁶⁴⁾

64) 『삼국유사』에서는 태백산도 보이는데, 이 또한 『삼국유사』 이외에는 『法界圖記叢髓錄』이라는 문헌에 단 한 차례 나타날 뿐이다. “古記云 相和尚住太伯山大蘆房時 爲眞定智通等 說行人欲見十佛者.”

桓雄도 그런 사례이다. 熊女 역시 불경 계통의 문헌에서는 『삼국유사』에만 보인다. 불교에는 ‘곰여자’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⁶⁵⁾

또한 곰이 인간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靈艾과 蒜에도 주목해 보자. 썩을 신령스럽다고 표현한 靈艾도 역시 어떤 불경에도 보이지 않는 표현이며, 『삼국유사』에만 보인다. 神市라는 용어 역시 『삼국유사』에서만 보인다. 神檀樹(神壇樹)라는 용어 역시 그렇다. 藏唐 역시 불경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용어이다.

결국 단군신화 속에서 불교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용어는 桓因 밖에 없는 셈이다. 환인이 제석천 즉 釋迦提桓因陀羅의 축약어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힌 바 있다.⁶⁶⁾ 이는 오히려 하느님과 유사한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⁶⁷⁾

白鳥의 경우도, 단군신화의 여러 내용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만 뽑아내어, 불경의 내용과 연관시키고 있다. 스스로 전설이나 신화에 고래로부터 전승되는 부분과 후대에 부착된 가구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후대에 부착된 가구만 천착하고, 단군신화의 전체 모습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白鳥는 불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의 내용을 불교와 연관시킨 것 자체가 당시의 白鳥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는 간단한 강연요지를 제외하면, 불교에 대한 전문은 단 한 편도 없다.⁶⁸⁾

65) 불교에서는 죽은 후에 轉生하기 때문에, 곰이 바로 사람이 된다는 발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正新修大藏經에서 熊女라는 어휘는 『삼국유사』에만 나타나고, 女熊은 14세기의 『資行鈔』(일본)에만 보인다.

66)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26~27쪽.

67) 梶田光康, 「三國遺事」における桓因と帝釋－日本における天神信仰の視点から－ 『연민학지』 14, 2010, 439-494쪽.

불교에 대한 강연도 서역사 및 새외민족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불교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白鳥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그가 단군신화가 승려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자, 이후의 일본인 학자들은 전후의 맥락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안이하게 단군신화를 불교에 연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불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군신화를 불교와 연결시킨 그의 허물은 비판할 만하다.

V. 신화 이해의 문제점

1. 부분에 대한 집착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왜 향나무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白鳥가 「神代史の新研究」에서 치밀하게 고증한 방법대로 단군신화를 설명할 수도 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白鳥는 이자나기는 천신이고 이자나미는 지신이며 두 신이 소통하는 통로가 거목과 대지의 배꼽인 움팔로스라고 하였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고, 원래 동굴에 살고 있던 곰은 당연히 지신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신과 지신의 결합을 상징하는 거목이 바로 檀樹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박달나무는 최대 30m까지 자라는 나무로 거목의 반열에 들 수 있다. 단군은 천신과 지신의 결합으로 생겨난 존재인 셈이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여러 신들을 생성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68) 『白鳥庫吉全集』에서 불교와 관련된 글은 두 편이 있다. 제6권 西域史研究 上에 「仏教東漸の伝説(講演要旨)」와 「仏教東漸史上の難問題に就いて(講演要旨)」가 보인다. 불교 전래에 관한 내용이며 불교 교리에 관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불교와 관련시켜 논의한 것은 단군신화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白鳥는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군신화는 승려들이 조작한 요설괴담의 허구이고, 일본의 신화는 세계 신화와 공통성을 가진 정상적인 신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白鳥의 논리 속에서는 신화의 원형에 대한 상당한 왜곡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함께 하늘 위에서 天瓊杵로 바다를 저었다고 하였으므로, 양자 모두 천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白鳥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곧 다카미무스비와 가무미무스비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주장 역시 일본 신화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구조화하는 방법이기 는 하지만, 가무미무스비와 이자나미의 행적은 큰 차이가 나서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白鳥의 단군 신화 이해는 신화의 전체 구조를 본 것이 아니라, 신화 내용 중에서 오로지 桓因과 檀이라는 한자에 주목하고, 그 한자들이 불경에 보이기 때문에 단군신화는 승려들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한 것에 불과하다.

2. 日向 지역의 전방후원분

천손은 이 모든 나라를 혈통적으로는 능력적으로든 모두 아우르는 존재로 그려진다. 니니기와 오야마쓰(大山祇神)의 딸인 가시쓰히메(鹿葦津姬, 木花開耶姬)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호호데미(彦火火出見, 히오리)이다. 이는 산국(山國)과의 통합을 뜻한다. 호호데미는 다시 海國의 도요타마히메(豐玉姬)와 혼인하여 우가야후키아에즈(鸕鷀草葺不合尊)를 낳았다. 이는 해국과의 통합을 뜻한다. 우가야후키아에즈가 다시 이모인 다마요리히메(豐依姬)와 결혼하여 이와레히코(神武)를 낳았다.

황손은 천신지기 및 해신 그밖에 모든 신과도 혈연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어떤 신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된 셈이다. 그러므로 황실은 정신상의

통일자인 동시에 정치상의 군주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⁶⁹⁾



〈그림 5〉 西都原古墳群 분포도(柳澤一男)

69) 白鳥庫吉, 앞의 책.

오쿠니누시는 스사노오의 아들이고, 니니기는 아마테라스의 아들이다. 이미 오쿠니누시는 葦原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배권을 니니기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천신의 자손이 군주가 되고, 지신의 자손이 신하가 되면서, 군신 관계는 천지의 관계처럼 되었다. 이를 결코 뒤집을 수 없다. 황실을 상징하는 3종의 신기는 황실의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옥은 천신이고, 검은 지신이다. 그리고 천신이 존귀하기 때문에 천신이 병의하는 물건으로 거울이 사용되었다.⁷⁰⁾

記紀의 정신으로 보면, 천황은 일본국민이 믿는 모든 신의 군주이며 또한 그 신이 지배하는 지역과 연고친족이어야만 하므로, 니니기는 천국과 지국의 신을 부모로 하고, 顯國의 신들과는 親屬의 관계를 가진다.

〈표 5〉九州 지역의 대형 고분

	지역	고분명	규모(m)	시기(세기)
1	宮崎	女狹穗塚	178	5전
2	宮崎	男狹穗塚	160	5전
3	宮崎	生目3號	143	4후
4	鹿兒島	唐仁大塚	140	5초
5	鹿兒島	横瀬大塚	140	5후
6	福岡	岩戸山	138	6전
7	宮崎	生目1號	130	3말
8	宮崎	持田1호	120	4말
9	大分	小熊山	118	4전
10	大分	龜塚	118	4말

이처럼 白鳥의 일본 신화 이해에 있어서, 日向과 出雲 지역과 지연·혈연적 관계에 있다고 한 일본신화의 내용은 지배자와 피지배 지역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위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日向三代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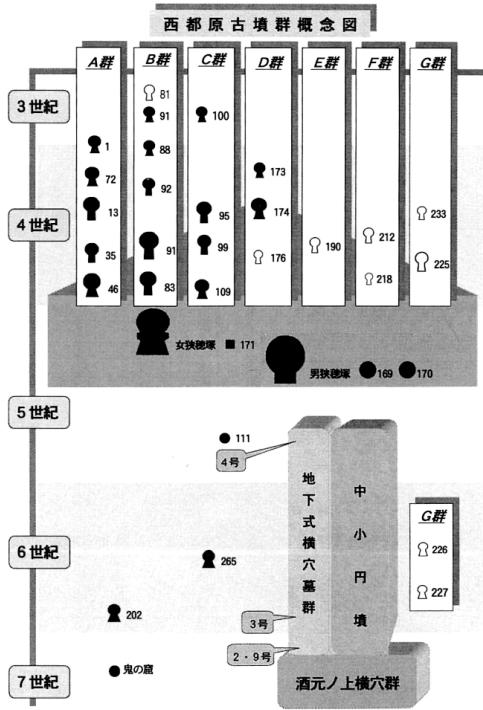
70) 白鳥庫吉, 앞의 책, 543쪽.

고천원의 신화와 神武에 의한 동정 사이에 위치하는 중요한 기간이지만, 정작日向 지역은 白鳥는 자신의 연구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로 보면, 해당 지역(현재의 宮崎縣)은 일본 전체에서 고분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 중에 한 곳으로 334기의 고분 중 32기의 전방후원분이 있고,⁷¹⁾ 시기적으로 3세기 초부터 6세기 중엽에 이른다. 그 중에서 男狹穗塚와 女狹穗塚는 각각 길이 160m, 178m로 九州 전체에

서 가장 큰 전방후원분이다. 그밖에도 규슈의 대형고분은 후쿠오카의 岩戸山古墳(138, 6세기 전기)을 제외하면 모두 규슈의 남서쪽 지역에 모여 있다. 女狹穗塚의 경우는 河内平野로 묘역을 옮긴 최초의 대왕묘로 간주되고 있는 中津山古墳의 거의 3/5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분묘형태 설계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단순히 畿内政權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대로 畿内政權이 규슈 지역을 장악하고 오키나와 지역과 교



〈그림 6〉 宮崎縣 西都原古墳群 개념도(柳澤一男)

71) 柳澤一男, 「古墳時代 日向の王と生目古墳群」 『浮かび上がる宮崎平野の巨大古墳』(宮崎市教育委員會, 2000, 8~16쪽.

통하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곳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3. 曲玉과 銅鏡의 중심지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가 서로의 결백함을 증명할 때 사용한 물건으로 曲玉(勾玉)이 등장한다. 白鳥는 곡옥이 武勇에 대한 仁愛의 표상으로 보았다.⁷²⁾ 그리고 이 곡옥은 이자나기가 목에 걸고 있던 옥을 아마테라스가 태어났을 때 준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곡옥은 뱀씨에 견줄 수 있고, 이 종자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그 덕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곡옥의 이름을 창고의 선반이라는 의미인 ‘다나’를 붙인 사례가 있는데, 다네와 다나는 동일한 어원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일본서기』 신대권 一書 중 保食神에 관한 조에서 水田種子를 ‘다나쯔모노’ 또한 『효덕기』에서도 稻種을 ‘다나시네’라고 혼독하였다. 그래서 이자나기가 아마테라스에게 곡옥을 준 이유는 옥이 곧 벼의 정령·영력으로 간주하여 천상에서 곡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 본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⁷³⁾

비취로 만든 옥제품은 조몬시대 중기부터 나타나지만, 야요이시대 후기까지 비취 제품이 출토된 지역을 확인해 보면, 조몬·야요이시대까지畿内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야요이시대 비취제품의 분포지역은 북규슈, 기비(吉備), 이즈모 등이다. 규슈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후쿠오카현의 平原遺跡이다.⁷⁴⁾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따르면 야마대국 여왕 臺與가 위에 보낸 진공품 중에 孔靑大句珠가 보인다. 구멍이 뚫린 푸른색의 굵은 형태의 보석

72) 白鳥庫吉, 앞의 책, 426~427쪽.

73) 白鳥庫吉, 앞의 책, 428~435쪽.

74) 森浩一, 『日本神話の考古學』, 朝日文庫, 1999, 105~118쪽.

이라고 하였으므로, 비취나 푸른 유리로 만든 曲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대역의 진공시기는 248~266년이다. 이 시기에 畿内 지역에서 비취제 곡옥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기내에서는 오사카부와 나라현에서 각 1점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곡옥의 의미에 대한 白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곡옥에 관한 신앙을 보여주는 일본 신화가 야마토정권의 신화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자나기부터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오로 이어지는 곡옥에 관한 이야기의 원형이 성립된 곳은 결코 畿内일 수 없고, 북규슈나 비취의 원산지에 가까운 이즈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白鳥는 야마대국이 규슈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서, 야마토왕권의 천황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7〉 平原遺跡에서 발굴된 유리제 곡옥·동경·철검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신화에서는 거울이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한다. 특히 八咫鏡으로 불리는 거울은 아마테라스를 상징하는 물품이다.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버리자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아마테라스를 끌어내기 위해서 거울을 만들었고, 아마테라스는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끌려 나왔다고 전한다. 이 거울은 천손강림 때 니니기에게 “이 보배로운 거울을 보기를 나를 보듯이 하라”고 주었고, 천황가의 3종 신기 중에서 으뜸가는 물건이 되었다. 이 팔지경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북규슈의 平原古墓에서 발굴된 초대형 內行花文鏡과 같은 종류의 거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8〉 팔엽 내행화문경(직경 46.5cm, 무게 약 8kg). 平原遺跡 출토

내행화문경 등 야요이시대의 漢鏡은 북규슈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마토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분묘에 거울을 부장하려는 관념이 없었던 것으로 볼 정도였다.⁷⁵⁾ 또한 삼중 신기로 받아들여진 거울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거울을 보관하는 용기(御桶代)의 직경이 1척 6촌 3푼 약 49cm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울의 모양을 자료에서는 ‘八頭花崎八葉形也’라고 하여 초대형 내행화문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⁶⁾

실제로 평원유적에서는 동경과 유리제 곡옥·검(철제 素環頭大刀)의 3종 신기에 해당하는 물품이 모두 발견되었다. 따라서 일본 신화의 원래 무대는 북규슈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평원 1호분에서는 총 40매의 동경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 5매가 직경 46.5cm에 달하는 5매의 내행화문경이었다. 또한 동쪽에는 직경 70cm, 추정 높이 20m의 큰 기둥을 세운 흔적도 확인되었다.⁷⁷⁾ 이는 白鳥가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高木神 혹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계수를 연상시킨다.

VI. 맺음말

白鳥는 히미코의 아마대국이 북규슈에 있었다고 하여 아마토왕권과 구분하였고, 고사기·일본서기의 신화는 아마토왕권의 신화로 간주하였다. 그런 까닭인지 일본신화 중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즉 日向 三代나 神武 東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천황가가 畿内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면, 왜 천손강림의 무대는 畿内가

75) 森浩一, 앞의 책, 75쪽.

76) 森浩一, 앞의 책, 77~83쪽.

77) <https://www.city.itoshima.lg.jp/s033/010/020/010/110/010/hirabaru-iseki.html>.

아니라 규슈 지역이었는지, 왜 진무천황이 日向로부터 동정을 시작하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일본신화의 해석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지만, 신화의 전체 내용 중에서 특히 神代로부터 人代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단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그의 신화 연구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일본에서 그의 신화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⁷⁸⁾

그의 일본신화 연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神代史の新研究」는 논문이나 저서의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강연한 내용을 사후에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국학자 등의 기왕의 견해를 나열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어휘나 개념, 내용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정치한 연구를 수행한 일본 신화에 비해서, 단군신화의 경우는 檀·桓因·妙香이라는 어휘에만 집중하였고, 구체적인 논증은 크게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白鳥의 연구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1894년(29세)에 이루어진 것이고, 일본신화를 최초로 강연한 해가 1913년(48세)이고, 「神代史の新研究」는 1928년(63세)에 행해진 강연록에 기초한 것이다. 결국 白鳥가 신화에 대한 연구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단계에서 단군신화를 연구한 셈이므로, 연구력 자체가 미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극히 단편적인 어휘만을 불경과 연관시켜, 승려가 허구로 만든 신화로 간주한 것은 오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雪野亂行을 경계할 만하다.⁷⁹⁾

78) 水野祐, 『日本神話を見直す』, 學生社, 1996. 참고문헌 목록에 津田左右吉 등의 연구성과는 보이지만, 白鳥庫吉의 저작은 보이지 않는다.

79) 심사위원 중 한 분이 “白鳥庫吉의 단군신화에 대한 기술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곡필인지, 연구력 자체가 미숙한 단계에 기술된 것인지? 후자라면 白鳥庫吉이 이른 시기의 논고, 연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改稿 혹은 別稿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보강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인데 사후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해 주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의 한국사 연구는 「檀君考」·「朝鮮의古傳說考」를 제외하면, 국명·지명·관명·왕호·어원·칭호 등 언어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의 연구에서 한국의 신화나 전설을 본격적으로 다룬 바가 없다. 둘째, 그의 한국사 연구는 1894년에 시작되어 1897년에 「日本書紀に見える韓語の解釋」을 발표한 이후 잠시 중단되었고, 1900~1906년 사이에 다시 「漢史に見えた朝鮮語」 등을 발표한 이후 휴지기를 맞는다. 1912~1915년 사이에 다시 「漢の朝鮮四郡疆域考」 등을 다시 발표하지만, 오히려 중국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가 일본신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무렵에는 이미 한국사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檀君考」의 내용을 수정할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사료

『日本書紀』·『古事記』·『三國遺事』·『東國輿地勝覽』·『觀佛三昧海經』·『佛說立世阿毘曇論』·『法界圖記叢髓錄』·「廣開土大王陵碑文」

2. 연구 논문

-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 박찬홍, 「만선사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2007.
- 신현승, 「타자에 대한 시선과 동아시아 인식—시라토리와 나이토의 언설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0, 2010.
- 윤승준, 「육당 최남선의 단군론 연구」 『인문학연구』 37, 2009.
-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 조현설, 「동아시아 신화학의 여명과 근대적 심상지리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 16-1, 2000.
- 袴田光康, 「三國遺事」における桓因と帝釋—日本における天神信仰の視点から—
『연민학지』 14, 2010.
- 落合直澄,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藏版(東京), 1888.
-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藏版(東京), 1892.
-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誌』 5-4, 東京, 1894,
-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説考」 『史學雜誌』 5-12, 東京, 1894.
- 白鳥庫吉, 「神代史の新研究」 『白鳥庫吉全集』 1권, 岩波書店, 1969.
- 白鳥庫吉, 「朝鮮語の數詞について」 『白鳥庫吉全集』 2권, 岩波書店, 1969.
- 水野祐, 『日本神話を見直す』, 學生社, 1996.
- 岡野潔, 「インド正量部のコスモロジー—文獻, 立世阿毘曇論」 『中央學術研究所紀要』 27, 1998.
- 森浩一, 『日本神話の考古學』, 朝日文庫, 1999.
- 直木孝次郎, 『神話と古事記·日本書紀』, 吉川弘文館, 2008.
- 柳澤一男, 「古墳時代 日向の王と生目古墳群」 『浮かび上がる宮崎平野の巨大古墳』(宮崎市教育委員會), 2000.
- <https://21dzk.l.u-tokyo.ac.jp/SAT2018/master30.php>. 2022년 2월 28일 검색.

Abstract

On the Shiratori Kurakichi's Understanding Japanese Myth and Tangun Myth

Rhee, Kun-woo

Shiratori Kurakichi was the first Japanese scholar to study Tangun mythology as a method of documentary evidence. He studied Japanese myth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theology and linguistics and wrote an article called New study on gods' period. The horizon for understanding Japanese mythology was expanded by explaining not only Chinese literature but also cases such as Europe and America. He explained that the mythical gods are the personification of nature and natural phenomena, and that the world of God is an ideological world. In particular, it pointed out the mythical universality, purpose and influence of Chinese ideology in Japanese mythology. On the other hand, as for Tangun mythology, it was hastily concluded that monks manipulated Tangun mythology in the King Jiansu era after Goguryeo accepted Buddhism by paying attention to only the three words, birch, mysterious scent, and Whan-in. However, he did not write a single paper on Buddhism, and even though he did not know much about Buddhism, he related Tangun mythology to Buddhism. He did not deal with Himuka, the place where the grandson of the sun god in Japanese mythology descended and the stage of three generations in Himuka, nor with the essential part of Tangun myth.

In other words, he made the mistake of being obsessed with the part and overlooking the whole. At the same time, Tangun mythology was not explained by using various historical sources like Japanese mythology, because the time of writing tangun's thesis (1894, 29 years old) and the time (1928, 63 years old) left a lecture on Japanese mytholog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Key Words : Tangun myth, Shiratori Kurakichi, Japanese myth, Izanagi, Izanami,
bronze mirror curved jade

논문 투고일 : 2022. 02. 28

심사 완료일 : 2022. 03. 21

게재 확정일 : 2022. 04. 06